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 선택 아닌 필수



삼일회계법인

CSES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매경ECONOMY

공동 기획

명순영 · 류지민 · 반진욱 기자

ESG의 모든 것 시리즈

- 1 왜 지금 ESG인가
- 2 ESG 국내외 동향 살펴보니
- 3 ESG 성적표 보는 법
- 4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법
- 5 ESG 성공을 향한 'Top Secret'
- 6 ESG로 'How to make Money'
- 7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 8 탄소중립 핵심 키워드 'RE100'
- 9 사회 기여도와 투명성 높이는 법
- 10 CEO가 명심해야 할 ESG 10계명

전북 익산시 제2공단에 위치한 LG 화학 EP소재개발센터. 연구원들이 다루는 쌀 입자 크기의 투명한 알갱이는 전자제품과 차량 내외장재 등의 원료로 쓰이는 플라스틱 합성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일반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니라 쓰다 버린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PCR(Post-Consumer Recycle)' 폴리카보네이트다. LG화학은 일반 소재에 PCR을 일정 비율(20~85%) 섞어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LG화학이 선언한 'RE(Renewable Energy)100' 전략을 수행하는 차원에서다. LG화학은 지난해 7월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RE100을 추진 중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SG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클라이밋그룹이 2014년 시작한 RE100은 2050년까지 최종적으로 기업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체로 2030년 60%, 2040년 90%라는 단계를 거친다. 참여 대상 기업은 연간 전력소비가 100GWh에

달하는 기업이다. RE100 가입을 선언한 기업은 RE100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1년 안에 관련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RE100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은 309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은 이미 100% 전환에 성공했다. 80%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25개, 90% 이상은 45%에 달할 만큼 전환 속도가 빠르다.

이른바 '한국형 RE100'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추진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한국형 RE100 캠페인'과 석탄화력발전 30기 폐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대 등을 담은 제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한국형 RE100에 가입하면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SK 그룹 최초 가입

삼성전지도 가입 시기 검토 중

국내 기업 중 가장 앞선 곳은 재계 서열 3위 SK그룹이다. 지난해 11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가속화 일환으로 지주사 SK(주)를 비롯해 계열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개사가 동시에 가입했다. 가입 대상이 아닌 SK이노베이션과 SK E&S 등 발전·정유 화학 계열사도 참여를 선언했을 만큼 적극적이다.

SK그룹의 친환경 행보 이면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의지가 깔려 있다. 최 회장은 2018년 그룹 CEO 세미나에서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을 계기로 RE100에도 서둘러 가입했다.

SK그룹을 시작으로 RE100에 가입하려는 국내 기업은 증가 일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목표의 조기 달성까지 약속했다. RE100은 205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을 목표로 삼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친환경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서 이를 20년 앞당긴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국내 뷰티업계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 측은 "2008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공정을 구축해왔다"며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원단위 감축, 에너지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국제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1위 기업(지난해 기준 국가 전체 신재생에너지 6.5% 용량, 발전량 7.7% 공급 중)이라는 이름에 맞게 청정 물에너지 전국 확산을 위한 친환경 설비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 RE100 가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듯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삼성전지도 RE100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RE100 가입과 별개로 유럽과 미국, 중국 내 모든 사업장 전력을 100%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김석기 당시 부사장은 "삼성전자 역시 RE100 가입 의향이 있다"며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지면 적절한 시기에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 RE100 가입 열풍

국내선 제도 정비와 인센티브 시급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국내 기업과 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 협약에 가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이미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 중이다. 사진은 영암 양구 풍력발전단지. (한화건설 제공)

리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대한 대비를 일찌감치 시작했다.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인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기준 미국 51개, 유럽 77개, 아시아 24개 등 총 284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했을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애플, 구글, 이케아, TSMC 등 이름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전 세계는 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탄소중립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RE100 위원회가 발간한 2020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RE100에 가입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 시점은 평균 2028년이다. 애플, 구글, MS 등 53개 기업은 이미 2019년에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했다. 회원의 75%는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BMW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제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72%를 달성하는 저력을 보였다.

RE100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간 이니셔티브 중 가장 강력한 캠페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RE100에 참여하는 글

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가입을 독려하면서 그 영향력이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RE100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애플은 이미 2018년 4월 세계 43개국에서 100%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 사용을 달성했다. 특히 애플은 자사의 캠페인 달성 여부뿐 아니라 공급업체에도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제조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애플은 청정에너지 포트폴이라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적이다.

BMW도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 BMW는 2020년까지 풍력·바이오가스·태양광 등 자가 설비와 인증서 구매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원 전력 조달을 완료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에도 이를 요구한다. 이에 BMW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삼성SDI는 해외 공장을 재생에너지원 전력으로 공급하는 한편 울산공장의 6.3%를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한다. 스위스리(Swiss Re) 재보험사와 함께 RE100 캠페인의 창립 파트너인 이케아 역시 각 이케아

매장에서 소비하는 총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윤영창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에는 계약서, 협약서 등을 통한 명시적인 납품 요건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글로벌 RE100 참여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 윤영창 PwC컨설팅 파트너

RE100 맞춰야 ‘글로벌 교역망’에서 살아남는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은 이미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애플·BMW 등 글로벌 ‘큰손’들은 한국의 협력사들에게도 RE100을 실천하라고 요구한다. 국내 기업은 당혹스럽다.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느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다고 주요 고객사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국내 기업들이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 윤영창 PwC컨설팅 파트너에게 해법을 물어봤다.

Q. 왜 국내 기업이 RE100을 지켜야 하는가.

A. 국제사회에서 탄소와 에너지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올해 1월부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약’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파리협약 가입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이미 탄소국경세 도입을 시사했다. 각

다만 전 세계적인 RE100 열풍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RE100 도입 추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탄소중립 실현은 쉽지 않은 과제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탄소 배출량이 많고 생산 공정을 전환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 또 올 초 도입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에도 제도적인

국 정책에 발맞춰 애플·BMW 등 다국적 기업도 재생에너지로 기업 사용 전력을 대체하는 RE100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이들은 물건을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RE100 이행을 요구한다. RE100 가입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제 RE100은 글로벌 교역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켜야 할 필수 규칙이 됐다.

Q. 어떻게 RE100 전략을 짜야 하는지 고민하는 회사가 많다.

A. 당연하다.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발전량 규모·신재생에너지 비용·전력 거래 방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해 기업들의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단가와 일반 발전으로 얻은 산업용 전력 가격 차이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크다. 기업이 고민에 빠지는 게 당연하다.

다만 해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RE100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히점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윤영창 파트너는 “RE100 달성 여부는 앞으로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활용과 생산 공정 변경, 에너지 효율화, 자원 순환 등 다양한 방식이 총동원돼야 한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속한 제도 도입과 함께 기업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면서 전력 단가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Q. 국내 기업이 무턱대고 RE100 선언을 하는 것은 무모해 보인다.

A. 맞다. RE100은 단순한 선언 수준이 아니다. 엄밀한 ‘협약’이다.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는 탄소를 줄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RE100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크게 2가지 사항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첫째, RE100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회사 사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은 문제가 없는지, 정말 실천 가능한 목표인지 꼼꼼히 점검하라는 이야기다. 정유 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정유 회사는 종사하고 있는 산업 특성상 애초에 RE100 선언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RE100을 선언한다면 기업을 망치는 행위에 불과하다. 정확한 현황 판단은 필수다.

두 번째는 규제를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각국 정책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규제를 ‘기업 의무 부담’과 ‘인센티브 제공 관점’ 2개로 구분해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관찰 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재생에너지 규제 관련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 체질을 바꿔야 한다.

다시 한번 골든타임 팀의 진화벨이 울린다

놓치지 말아야 할 소리

보이스4

송승헌

2021.06 | tvN

이하나

연출 | 신용희 윤광영 | 각본 | 마지원 김정현